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 차원 녹색전환 필요”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 설정,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
기후위기 비상선언, 생태숲 조성·서식지 복원 추진해야

광전연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주장

포스트 코로나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전남 차원의 녹색전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차원의 중장기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 설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및 녹색행동 실천, 생태숲 조성 및 훼손 서식지 복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정책브리프”를 통해 “코로나 19 등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은 사람과 동물간 상호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발병 가능성이 커지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시스템은 점차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지구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친환경·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최근 3개월간(2020년 1-3월) 전력 소비량 및 석유소비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각각 5.7%,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2100년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달성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향후 10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할 때 최근 3개월간 변화한 광주·전남의 에너지 소비량은 향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 EU의 그린딜 그리고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동향을 고려한 광

주전남 차원의 녹색전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전남의 녹색 전환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확산, 한빛 원전 설계수명 종료 등에 대비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제로에너지 빌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광주·전남에 서식하는 야생박쥐 사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야생동물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람·동물·환경 간 다차원적 연계전략 마련 등도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세번째)가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권오봉 여주시장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승인신청과 예산확보, 운영인력 지원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여수시 ‘2026세계섬박람회’ 공동 개최

승인 신청·예산 확보 협력 구축
전남도와 여수시가 24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청장과 권오봉 여주시장, 최병용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박람회를 공동개최하고, 국제박람회 승인 신청과 예산 확보, 운영인력 지원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

다. 섬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섬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개최 준비 중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Island, Connecting Ocean and Future)’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0개국, 200만 명 참여 규모로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와 인근 도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

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될 이번 박람회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섬 해양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을 세계에 알리고 섬이란 주제를 선점해 전라남도를 섬과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어가겠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열차 제어장치 부품 수명 확인
광주도시철도공사, 특허 취득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자동 열차 제어장치 부품 잔여 수명 확인시스템과 관리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차량팀 최진원 부장 등 5명이 전통차 운행 중 레일 아래에서 보내는 속도 코드를 열차가 수신할 때 생기는 오류를 해결하려고 2017년부터 연구한 성과이다. 전통차는 주행 시 자동 열차 제어장치 신호 보드라는 장치를 통해 코드를 받아 속도를 제어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함구미 항로 정부가 살린다

적자 누적 여객선 운항 중단 우려
해수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해양수산부가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를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했다. 24일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항로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해왔다.

여수시 화정면 제도, 개도, 자봉도, 금오도 등의 주민들이 여수 도심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는 항로인 여수~함구미 항로는 (주)신아해운의 한려페리9호가 하루에 2번 왕복했으나, 이용객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운항 횟수가 감축될 우려가 있어 도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를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해 연간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객선 운항 중단이나 횟차 감소 우려를 해소해 도서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지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부터는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이 구축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적자인 항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운영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운둔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추가 선정은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은 물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 가우도 3687억원 투자 관광·휴양시설 건설

전남도·군·GFI개발 투자협약
리조트형 호텔·케이블카 조성

전남도와 강진군은 24일 (주)GFI(Gaudo of the Fantasy Island)개발과 강진 가우도 일원에 3687억원을 투자해 리조트형 호텔·휴양시설을 건설할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협약식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추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이용백 (주)GFI개발 대표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승욱 강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치러졌다. 협약에 따라 (주)GFI개발은 가우도 일원 28만8000㎡를 오는 2024년까지 3687억원을 투자해 리조트형 호텔 340실과 풀빌라 118실(단독형34, 테라스형 84실)을 비롯 해상케이블카, 스카이라이프, 알파인 코스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3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우도에 관광·레저·휴양시설이 들어서면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만 정원 등과 연계해 전남 서남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관광

개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별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2023년),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2023년) 개통 등 주변 기반시설이 개선되면 내륙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전남 중남부권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진군과 함께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 7기 이후 지금까지 584개 기업과 투자 17조2044억원, 1만 6976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1000개 기업 유치에 목표를 투자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